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베트남 ‘VOS Discovery R&amp;D센터’ 개소

## 오가노이드 대량생산 기반 구축… 글로벌 영토 확장 속도

호치민시 과기부 차관 등 참석  
토종 오가노이드 기술 서비스화  
“동남아 바이오 R&D 거점 육성”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베트남을 거점 삼아 토종 오가노이드 기술을 동남아시아 시장 전반으로 본격 확장에 나선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베트남 자회사 VOS Discovery(디스커버리)가 지난 7일 호치민시 투득 지역에 연구개발(R&D)센터를 공식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개소는 단순한 연구시설 오픈을 넘어, 한국이 축적한 오가노이드 기술을 베트남에 뿌리내리고 이를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장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센터가 들어선 투득은 최근 호치민시가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베트남국립대를 비롯한 대학과 병원, 과학기술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어 학문적 교류와 연구 협력에 유리하고, 앞으로 신공항과의 접근성, 사이공 하이테크파크(SHTP)와



지난 7일 호치민시 투득 지역에서 열린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베트남 자회사 VOS Discovery(디스커버리)의 연구개발(R&D)센터 개소식에서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인접성, 도시 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R&D센터에서 개발되는 주요 품목들은 향후 SHTP 내 생산시설에서 대량 제조될 예정인데, 이는 SHTP가 삼성, 인텔 등과 같은 글로벌 최첨단 기업에게만 생산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VOS Discovery R&D센터는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내세웠다. 첫째, 한국의 앞선 오가노이드 기술을 현지에도 도입해 연구자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화한다는 것. 둘째, 오가노이드의 대량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연구와 산업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 셋째, 장기적으로는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연구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글로벌 바이오 분야의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현지와 한국 양측인

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베트남 측에서는 호치민시 과학기술부 차관을 비롯, 베트남국립대, 베트남 과학기술원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코참(KOC HAM), 아시아문화교류재단,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측은 이번 R&D센터 개소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글로벌 전략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한국의 기술력과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결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VOS Discovery는 베트남 내 연구 협력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바이오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건구 VOS Discovery 법인장은 개소식에서 “이번 센터는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을 넘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바이오 연구개발을 이끄는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교두보 삼아 동남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자음생 뷰티 페어 개최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오는 11월 2일까지 주요 온라인 채널과 전국 백화점 매장에서 ‘자음생 럭셔리 뷰티 페어’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음생 크림은 설화수 대표 제품으로, 피부 자생력에 중점을 둔 아모레퍼시픽만의 인삼 연구결과가 집약됐다. 아모레퍼시픽이 독자 구축한 ‘진세노믹스’를 처방했다. 희귀 인삼 사포닌 성분을 6000배 농축한 이 핵심 성분은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 탄력과 밀도를 높여준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음생 크림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매 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유통사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백화점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자음생 특화 세트도 함께 공개된다.

/이청하 기자

## 신제품

LG생건-엘지유니참  
라이언 ‘안심숙면팬티’

LG생활건강과 일본 유니참그룹의 합작회 엘지유니참은 카카오프렌즈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쏘피 안심숙면팬티를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생리대 브랜드 쏘피의 팬티형 생리대 ‘안심숙면팬티’에 라이언과 춘식이 디자인이 적용됐다. 중형·대형·특대형 등 각 사이즈별 포장과 함께 라이언과 춘식이 편안한 밤을 보내는 모습을 꾸몄다.

안심숙면팬티는 샘 걱정을 줄여 숙면을 돕는 제품이다. 신체 곡선에 딱 맞는 볼록맞춤 구조로 설계돼 생리혈을 빈틈없이 흡수한다. 소프트 이너 커버는 속옷처럼 부드러운 착용감까지 갖췄다. 허리 부분의 360핏 신축 허리밴드는 전방향 밀착력을 높여 안정감을 더한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파티온’  
노스카나인 퍼스트 스텝

동아제약은 국내 균일가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파티온 노스카나인 퍼스트 스텝’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파티온 노스카나인 퍼스트 스텝’은 트러블 전문 브랜드 파티온의 다이소 전용 신규 브랜드다. 트러블 고민이 시작되는 청소년층에 적합한 제품을 선보이며 트러블 진정을 본격 관리하도록 돕는다.

특히 학업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세럼 미스트’, 트러블 부위의 긴급 진정을 돕는 ‘스팟 젤 크림’ 등을 출시한다. 트러블로 인한 피부 흔적을 개선해 주는 흔적 앰플과 흔적 수분 크림, 국내 최초 여드름 완화 기능성 패드인 트러블 패드(4매입), 트러블 피부 전용 세럼 클렌저 등도 선보인다.

/이청하 기자

## JW중외제약 “리바로젯, 당뇨병 환자군 LDL-C 개선”

〈저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이상지질혈증 유효성·안전성 확인

JW중외제약은 리바로젯을 복용한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당뇨병을 동반한 환자군에서 저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리바로젯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제다.

JW중외제약은분당서울대병원연구팀과 함께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제2형 당뇨병 동반/비동반 환자를 대상으로 리바로젯 장기 복용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빅토리 스타디’를 진행하고 있다.



리바로젯

/JW중외제약

분당서울대병원 임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국내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고 있다”며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저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LDL-C)보다도 크기가 작고 밀도는 높은 ‘sd-LDL-C’는 관상동맥 심질환 유발 등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교수는 “지질 이상에 있어서 리바로젯은 LDL-C 수치를 강력하게 낮추는 동시에 혈당 안정성까지 입증한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 분석에는 국내 이상지질혈증 환자 824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뇨병 동반 환자는 408명, 비당뇨병 환자는 416명이었다.

당뇨병 동반 환자군의 LDL-C 수치 중간값은 리바로젯 복용 전 134mg/dL에서 48주 후 66mg/dL로 줄었다. 당뇨병 비동반 환자군의 수치 역시 159mg/dL에서 76mg/dL로 개선돼 당뇨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

sd-LDL-C 수치 중간값의 경우, 당

뇨병 동반 환자군에서 리바로젯 복용 전 41.45mg/dL를 기록했으나 복용 24주 후 23.62mg/dL로 떨어졌다. 당뇨병 비동반 환자군은 47.00mg/dL에서 25.54mg/dL로 낮아졌다.

또 투여 기간 동안 공복혈당(FPG)의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아 당뇨병 환자에서도 혈당 안정성이 확보됐다.

JW중외제약은 향후 후속 연구를 지속해 장기 임상 데이터를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리바로젯은 당뇨병 환자들의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실현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GC녹십자, ‘아메조스바테인’ 위탁생산

〈대상포진 백신〉

허은철 대표 “백신사업 지속 확장”

GC녹십자는 미국 관계사 큐레보와 대상포진 백신 ‘아메조스바테인’의 위탁생산(CMO) 권리 확보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GC녹십자는 아메조스바테인의 상업화 물량 일부를 생산하게 된다.

현재 큐레보는 만 50세 이상의 성인 640명을 대상으로 아메조스바테인 확장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해당 임상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임상 3상에 진입하고 상용화하는 등 후속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메조스바테인은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재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개발되고 있다. 합성 면역증강제를 사용해 국소적인 주사 부위 통증과 전신 반응이 일반적인 백신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약성 측면에서 차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사진)는 “이번 계약은 GC녹십자가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중요한 이정표이며 글로벌 백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한미사이언스·약품, 나이스신평 ‘AA-’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중 하나인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기업 신용등급 ‘AA-’(안정적)를 획득했다. 기존의 ‘A’ 등급에서 두 단계 상승한 것으로, 2023년 6월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 정기평가 이후 2년만의 상향 조정이다.

13일 한미그룹은 “‘AA-’ 등급은 국내 신용등급 체계상 매우 우량한 수준으로, 한미그룹의 견고한 재무안정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5년 반기 결산 재무제표 기준일을 토대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한미사

이언스는 국내 제약업계 주요 지주사중 최고 수준의 등급을 받았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 같은 평가 근거로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의 높은 사업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 ▲온라인팜·제이브이엠 등 주요 자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력 등을 꼽았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혁신신약 개발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고, 나아가 주주와 고객, 모든 이해관계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 전문경영에 보다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